



12면

익산시, 사상 첫 국가예산 1조원 시대 활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음 11월 16일) 제341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시, 국가예산 2조원 시대 개막

내년도 2조1017억 확보
올해보다 1962억원 증액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
불리한 여건 속 성과 이뤄
강한 경제도시 도약 등
새로운 전주 기틀 마련

전주시가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전주가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도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시는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2조 1,01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조9,055억원보다 1962억원(10.3%)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 증가액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변화된 정부의 건전재정에 따른 증액 및 신규사업 억제 △부처예산(안) 재검토 등 악조건과 더불어,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대치로 인해 국회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등 예산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분야 1,460억원 △경제·산업 분야 8,214억원 △광역·도시 분야 3,849억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7,494억원이다.

특히, 시는 전주 대변혁을 위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갈 탄탄한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K-한지마을 조성(1억원) △국제한지산업대전(3억원) △한국형 영



27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시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에서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이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화 효과음원 사운드랩(3억원) 등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한지산업 및 영화·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글로벌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드론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사업'(30억원)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9.3억원)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7억원) 등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미래 신산업을 성장·발전을 견인하게 됐다.

무엇보다 시가 최초의 국가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기까지는 국회단계에서 여야 지도부, 예결위원, 지역구 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 예결소위 의원인 이원택·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결과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시 현안관련 총 11개 사업 1,252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전주시의 국가 예산 2조원 시대를 환영하며 국비 확보 단계에서 고생한 전북 국회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정부의 긴축과 지역 예산 축소 기조에 맞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북 정치권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예산 시즌이었지만, 여야 쌍발통 협치로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예산 1,252억원이 최종 복원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재위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전주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전주 시민들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올해 전주

시는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일심동체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확보한 국가예산이 시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활기 넘치는 전주경제 대변혁을 실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공포

내년 12월 27일 시행... 도, 후속 준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후, 26일자 정부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서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특별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효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내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확정

국장급 3명 등 총 94명

전북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도 인사위원회는 국장급(3급) 3명과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53명 등 총 94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했다.

김영민(56) 안전정책과장, 박현규(58) 교육협력추진단장, 김광수(58) 지역정책



김영민



박현규



김광수

과장 등이 국장급 승진 내정자로 확정됐다. (국·과장급 명단 15면)

/김재훈 기자

글로벌 성장 꿈꾸는 국내·외 기업들, 전북으로 몰려든다

도, 민선8기 이후 투자유치 11조원 돌파

투자액 총 11조3708억원... 네트워크·전략적 투자유치전략 주요

국내·외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전북으로 몰려오고 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이 들어선 지난해 7월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이어지며 1년 6개월만에 투자액 규모가 무려 11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3면)

특히 민선 8기 친기업 정책과 제도 추진을 비롯해 도시사를 필두로 한 지휘부가 기업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는 열정이 빛을 발하면서 역대 민선 지방정부의 투자규모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차전지산업이 성장동력을 이끄는 고부가가치산업임을 깨닫고 일제감각 특화산업단지 유치에 뛰어들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도 지정돼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9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총 11조3,708억원의 자금을 전북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규모도 1만1,807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일차

리 창출과 정주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 지를 비롯해 농생명, 탄소, 수소 등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군을 비롯해 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기업 유치활동이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전북도 기업유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등 6대 혁신성장산업별 기업 분포, 산업현황, 입지특성 등을 분석해 분야별 타깃기업을 선정한 뒤 기업별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실제 기업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김관영 도지사가 그동안 쌓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직접 분야별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등 기업 맞춤형 투자활동을 벌이면서 기업들의 시선이 전북으로 쏠리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투자를 시작으로 LG화학, LS그룹 등 국내기업, 국내·외 합

작기업 등 굴지의 기업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5일 선포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원주 수소 특화산업단지 등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원주 테크노밸리2단계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등 첨단투자지구로 각각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게 돼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어서 전북도의 기업유치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유치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유치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만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의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 정책이 만나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함께 성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도정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謹賀新年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전주페이퍼